

## 고려 중기의 북송과의 회화 교류

홍선표

### I. 머리말

洪善杓

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명예교수  
한국미술연구소 이사장  
한국회화사

고려 회화는 송원 회화가 중국회화사의 전범을 새롭게 수립했듯이 한국회화사를 그와 같은 단계로 도약시킨 의의를 지닌다. 태조에서 정종 연간의 초기(918~1050년경)를 통해 고대의 전통을 일신하며 고려 회화의 기반을 새롭게 조성하면서 후대로 이어지는 근간을 이룩했다.<sup>1</sup> 이러한 고려 초기 회화의 신경향을 계승한 문종에서 의종 사이의 중기(1050년경~1150)에는 문인회가의 탄생과 문인 화론 및 화목이 대두하기 시작했으며, 화국(畫局)의 설립과 이녕(李寧)처럼 ‘명화’를 창작하는 거장급 화사의 출현으로 감상물 회화로로의 전환이 본격화한다.<sup>2</sup> 그리고 『어제비장전(御製秘藏詮)』 산수관화의 수용과 결부된 산수화의 약진과 더불어 실

\* 필자의 최근 논저: 『고려 초기 회화의 조명』, 『미술사논단』 48, 2019. 6; 『동아대 석당박물관 소장 〈新舊功臣相會題名圖〉』, 『미술사논단』 48, 2019. 6; 『韓國現代主義與女性抽象畫』, 『她的抽象』, 타이베이시립미술관, 2019. 7; 『韓國近代美術史』, 東京大出版會, 2019. 9.

1 홍선표, 『고려 초기 회화의 조명』, 『미술사논단』 48 (2019. 6), pp.39-69 참조.

2 홍선표, 『고려시대 회화 (I) 일반회화』, 예술원 편, 『한국미술사』 (대한민국 예술원, 1984), pp.269-287; 『고려시대 일반회화의 발전』, 『고려국보전 학술강연집』 (호암미술관, 1995. 7), pp.5-6; 『조선시대 회화사론』 (문예출판사, 1999), pp.131-132 참조.

경산수화의 태동과 진화를 이루었고, 고도의 원체풍(院體風) 수립과 함께 불교회화의 발전도 도모되었다.

고려 중기 회화의 이러한 질적인 변화와 비약에는 중국 회화의 황금기이기도 했던 북송과의 교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태조와 함께 '현성지군(賢聖之君)'으로 추앙된 문종이 이를 선도하였다.<sup>3</sup> 이 시기의 대표적인 문신 박인량(朴寅亮, ?~1096)이 「문왕애책(文王哀冊)」에서 문종의 치적을 가리켜 "(고려의) 문물을 변화하게 한 것이 중국에 견줄만하여 소중화로 일컬어지게 되었다"고 말한 것으로도 짐작된다.<sup>4</sup> 중국의 문물예악에 버금가는 동아시아 굴지의 '해동천하' 문명국으로서의 자부심과 더불어 문사층을 중심으로 시서화 융합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수립하며 한국회화사에서 중세적 단계를 본격적으로 열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고려 중기 회화의 이와 같은 비약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당시 북송과의 회화교류를 문헌자료에 의거해 다루고자 한다. 고려 중기 회화의 북송과의 교류에 대한 규명은 아직도 흥미한 상태인 당시 고려 회화에 대한 이해와 동아시아 회화사에서의 관계를 파악하는 기초 작업으로도 요긴하다.

## II. 문종대의 회화교류

문종 25년(1071) 3월, 고려와 송나라 사이의 통교가 재개되면서, 금나라에 수도가 함락되는 1127년까지 56년간 30여 차례에 걸친 양국 사절단의 왕래를 통해 회화 교류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3년 전인 문종 12년(1058)에 왕이 큰 배를 만들어 북송과 북교하려 했을 때, 최고 의정기관인 내사문하성에서 요나라와의 관계를 거론하며 "우리나라는 문물예악이 흥행한 지 이미 오래고 (북송) 상선의 왕래가 끊이지 않아 진귀한 문물들이 나날이 들어오니 중국과 통교해 실제로 도움을 받을 것이 없다"고 반대하자 이를 따르려 하였다.<sup>5</sup>

그러나 불교 중흥과 함께 유학에 의한 중앙집권의 강화를 피하면서 주자(鑄

3 『고려사』 권98, 열전11, 「林完」조 참조.

4 朴寅亮, 「文王哀冊」, 『東人之文四六』 권5, “文物芬葩 比盛上國 稱小中華”

5 『고려사』 권8, 세가8, 문종12년 8월 7일 “王欲…將通於松 內史門下省上言…況我國文物禮樂 興行已久 商船絡繹 珍寶日至 其於中國 實無所資”

字)와 서적 인쇄를 담당하는 '서적점(書籍店)'을 신설하고 시문 창화 풍조를 진작하는 등 학문과 문풍 진흥에 힘썼던 문종은 1068년 새로 즉위한 북송 신종의 '연려제요책(聯麗制遼策)'에 따른 두 차례의 요청도 있었지만, 한층 더 "문물이 환하도록 밝게 교화되는 풍조를 소망(希文明聲明之風)"하고 난만해진 북송 문화와 같은 고도의 선진화를 위해 복고하기에 이른다.<sup>6</sup> 명대 진진지(陳全之)의 『봉창일록(篷窓日錄)』에 수록된, 문종이 "꿈속에 변경(개봉)에 이르러 지었다(高麗文宗夢至汴京作)"는 시를 통해서도 북송을 '화서(華胥)'와 같은 전설의 이상국가로 그리워했음을 알 수 있다.<sup>7</sup> 그런데 문물수용에서 서적의 경우 북송의 철종이 고려 사절을 통해 서목을 보내 고려가 소장한 이들 선본의 전사(傳寫)를 부탁한 것으로 보면,<sup>8</sup> 서책류처럼 동아시아 최고의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서화 교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 아닌가 싶다.

1071년 북교 사신으로 입송한 민관시랑 김제(金悌) 일행 110인은 당시 개봉에 서의 임시 숙소로 추정되는 태평흥국사의 정법원에 머물면서 시서화를 접한 것으로 보인다. 1년 뒤인 1072년 개봉의 같은 절에 숙박한 헤이안(平安) 후기의 천태종 승려 조진(成尋)이 쓴 일기체 기록에 의하면, 대자(大字)의 명수였던 정법원의 정조 대사(定照大師)가 그보다 1년 전에 고려국 사신에게 '대나한(大羅漢)' 3자(字)를 3폭 비단에 꼭 들어차게 써주었다고 한다.<sup>9</sup> 그렇다면 정법원에서 정조대사의 안내로 조진이 구경한 왕희지의 난정서와 함께 여러 모본과 초상 등을 고려 사절도 관람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고려사절단은 귀국 길 항주에서 그곳의 통판으로 재직하며 접대한 30대 중반의 소식(蘇軾, 1037~1101)을 만나 예물을 주었는데,<sup>10</sup> 이를 상대했을 서장관은 시문에 뛰어난 박인량이었다.

고려 문물의 황금기를 연 것으로 평가받는 문종은, 북교 이듬해인 1073년 8

6 『고려사』 권77, 백관지, 『諸司都監各色』 조와, 권9, 세가9, 문종26년 6월 26일조 참조. 박용운, 「고려·송 교빙의 목적과 사절에 대한 고찰(상)」, 『한국학보』 22:1(1992), pp.208-209; 이진한, 「고려 문종대 對宋通交와 무역」, 『역사학보』 200(2008. 12), pp.252-255 참조.

7 韓致瀛, 『海東繹史』 권47, 藝文志6, 詩1 참조. 문종의 아들인 대각국사 의천도 1085년 입송(入宋)하여 남경을 관광하면서 華胥와 같은 이상향의 경지라며 놀랐다고 했다. 義天, 『大覺國師集』 권5 「謝揚南宮御齋表」, “京邑觀光 始訝華胥之境.”

8 『고려사』 권10, 세가10, 신종 8년 6월 18일조 “李資儀等還自宋 帝聞我國書籍多好本 命館伴 書所求書目錄 授之乃曰 雖有卷第不足者 亦須傳寫附來.”

9 정선모, 「북송후기 고려사절단의 북송사행 路程考-成尋의 『參天台五臺山記』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99(2017. 9), p.242 참조.

10 위의 논문, p.246 참조.

월에 종3품인 태복시(太僕寺) 경(卿) 김양감(金良鑑)과 종4품인 중서문하성의 중서사인(中書舍人) 노단(盧旦)을 진봉사와 부사로 보내 도화를 사들이고 ‘화소지공(畫塑之工)’을 구하고자 하였다. 김양감은 전남 광양에서 중국과 일본과의 해상무역으로 성장하고 왕건의 후삼국 통일을 도와 중앙정계로 진출한 왕실의 측근세력 집안 출신으로 문종의 신임이 두터웠다.<sup>11</sup> 문종의 장인이며 당시 최고의 문벌을 이룬 이자연(李子淵)의 문하생이기도 했다.

김양감을 사은정사로 구성한 1073~1074년의 고려사절단이 “중국도화를 구입하고자(訪求中國圖畫)” 했다는 내용은 곽약허의 『도화견문지』(1076)에 수록된 「고려국」에 전한다. 문종이 사절단을 통해 도화 구입을 의도한 것은 북송 황실이 개국 초부터 서화수집에 열의를 보인 것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 특히 송 태종은 당나라 말기의 전란으로 산실된 대가들의 서화를 전국적으로 ‘수방(搜訪)’하여 모았으며, 소문관(昭文館)을 비롯해 3관을 신축하고 승문원에 비각(秘閣)을 세워 ‘도화묵적(圖畫墨跡)’ 수천 축과 사관(史館)의 도화 140축 등을 수장했었다.<sup>12</sup> 그런데 고려 사절이 “예의구구(銳意購求)” 즉 좋은 도화를 구입하려 애썼지만, “다소 관찮은 것이 열에 한두 개도 되지 못했으나, 비용은 오히려 300여 민이나 들었다(稍精者十無一二 然猶費三百餘緡)”고 했다. 1민은 1,000문(文)으로 300여 민이면 30만 문 조금 더 되는 돈이었다. 당시 미莆(米芾, 1051~1107)이 『화사(畫史)』에서 언급한 서화가격에 의하면, 쌀 1석(石)이 600~700문 하던 시기에 당의 명품은 10만에서 70만 문이나 되는 고가였으며, 오대의 서희(徐熙)가 종이에 북송아를 그린 ‘도도(桃圖)’의 경우 8천 문 정도였다고 한다.<sup>13</sup> 그리고 유자례(劉子禮)가 전추밀(錢樞密) 집안의 수장품 500폭을 50만 문을 주고 샀는데 10만 문의 가치가 있는 성당시기 노홍(盧鴻)의 ‘초당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평범한 작품이었다고 한 것으로 보면 대부분 1,000문 내외였던 것 같다.

고려사절단이 30만 문의 예산으로 작품을 구입하려 했다면 고가의 당나라 명품은 사기 어려웠을 것이고, 오대의 상품(上品)이나 비교적 값이 싼 ‘금인(今人)’ 즉 북송대 작품을 주로 수집한 것이 아닌가 싶다. 당시 북송 수도 개봉은 당나라

11 최영호, 「고려전기 光陽 김씨 김양감 가문의 성장과 그 성격」, 『석당논총』 42(2008. 9), pp.245-266 참조.

12 『續資治通鑑長編』 권14, 太宗 太平興國 1年, 2年, 端拱 1年, 참조.

13 山岡泰造, 「米芾 ‘畫史’について(續)」, 『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紀要』 35(2002. 3), p.88 참조. 북송의 쌀 1석 가격에 대해서는 이진한, 앞의 논문, p.270의 각주 107 참조.



시대 장안의 70만 명을 상회하는 100만 명이 넘는 당시 동아시아 최대의 대도읍이었다. 이곳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혜택을 받아 가장 긴 4개월 여 머물면서 고려 사절의 숙소로 새로 건립된 동문관(同文館) 밖으로 제한된 인원이나마 외출하여 상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동문관 안에서도 한 달에 5차례 정도 시장을 여는 상국사 ‘만성교역(萬姓交易)’ 상인들을 불러들여 상점을 설치하고 교역할 수 있게 특별 배려를 받았으며,<sup>14</sup> 이를 통해 도화도 구입했을 것이다. 문종의 후비인 인예왕후가 소장한 “송나라 명화”로, 여산 동림사에서 백련사(白蓮社)를 결성했던 고승 혜원대사와 명유(名儒) 유유민을 비롯한 “18현인의 진영”도 이때 구입한 것이 아닌가 싶다.<sup>15</sup>

좋은 작품을 사려고 애썼지만 다소 귀찮은 것이 적었다는 내용은, 사절단 중에 안목을 갖춘 ‘구안자(具眼者)’가 아직 없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당시 구입처인 상국사 미륵전 뒤의 자성문(資聖門) 앞에서 팔던 ‘완호도화(玩好圖畫)’들이 가격만 비싸고 좋은 작품이 많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상국사의 서화시장은 당시 천하의 물품이 모여 ‘회취(匯聚)’되는 최대의 유통공간이었지만, 당말 오대의 전란에 의한 멸실기를 거친 후 북송대를 통해 새롭게 일어난 서화 애호풍조로 북송 작품과 위조에 의한 전칭작품 등이 세간에 넘쳐났는가 하면, 도화보다는 비첩(碑帖) 등의 서예물이 더 유명했던 것으로 보인다.<sup>16</sup>

1073년 8월에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 항을 떠나 10월에 절강성의 명주(明州)=영파(寧波)를 통해 입송한 이들 사절단은 다음 해인 1074년 1월 27일에 개봉의 궁성 내전인 수공전(垂拱殿)에서 황제를 알현하고 표문을 올려, ‘국인(國人)’ 즉 고려인들을 가르치기 위해 의자(醫者) 및 약인(藥人)과 화공(畫工) 및 소공(塑工)의 ‘사공(四工)’을 구한다고도 했다.<sup>17</sup> 이에 신종이 복건전운사(福建轉運使)로 재임 중 고려와의 복교에 공이 컸던 나중(羅拯)에게 (고려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도록 조서를 내렸다. 의약인의 경우, 문종 28년(1074)과 33년(1079)에 북송의 양주

14 김성규, 「북송의 개봉과 외교」, 『중국사연구』 13(2001. 5), pp.131, 147-153; 김영제, 「고려사절에 대한 북송 정부의 예우」, 『중국사연구』 84(2013. 6), pp.93-97 참조.

15 義天, 『大覺國師集』 권20 「國清寺講徹天台妙玄之後 言志生徒」, “仁睿太后…所有宋本名畫廬山十八賢真容落在院門.”

16 古原宏伸, 『米芾『畫史』註解』上 (中央公論美術出版, 2009), p.131; 楊軍, 「汴京大相國寺: 北宋的書畫交易市場」, 『中國社會科學報』(2014. 3. 20), p.2 참조.

17 『송사』 권487 열전246 외국3 고려 신종 희녕 7년, “又表求醫藥畫塑之工以教國人 詔羅拯募願行者” 『속자치통감장편』 권250 희녕 7년 2월 계미조에는 “權知高麗國王徽 表求醫藥畫塑四工 以教國人”으로 기록되어 있다.

의조교(楊州醫助教) 마세안(馬世安)과 한림의관 형조(刑髓) 등이 고려에 온 바 있다.<sup>18</sup> 그리고 서공의 『고려도경』에 의하면 문종이 악공(樂工)을 보내 달라고 주청하자 신종이 친히 하명을 내려서 가게 했으며, 수년 후에 돌아왔다고 한다.<sup>19</sup> 그러나 화공과 소조공의 고려 방문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다.

문종이 이처럼 북송의 화공과 소조공을 구하려고 한 것은 그가 정성을 쏟아 1056년에서 1067년까지 10여 년에 걸쳐 고려 최대의 사찰로 낙성한 2,800여 칸의 흥왕사 장엄불사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다.<sup>20</sup> 김양감 일행은 이때 대상국사와 태평흥국사, 계성사와 같은 개봉의 대표적인 거찰을 방문한 바 있으며,<sup>21</sup> 그 장엄함에 대해 귀국 후 보고했을 것이다. 광약허의 『도화견문지』에 의하면, 화공과 소조공 구청 2년 후인 문종 30년(1076) 해동공자 최충(崔沖, 984~1068)의 손자인 공부시랑 최사량(崔思諒, ?~1092)과 여러 명의 화공을 보내 상국사의 벽화를 모사하기를 주청하기에 이른다. 이에 신종이 조서를 내려 허락하니 모두 모사해 가지고 갔다고 한다.<sup>22</sup> 광약허가 “모사 화사 중에 화법이 정교한 자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고 그 우수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면, 당시 북송 화공의 구청이 고려 화사의 기량 향상을 위해서 보다, 황성의 동(東)경령궁 앞에 있던 개봉을 대표하는 제일의 사찰 상국사의 벽화를 이모해 오려는 의도 때문으로 생각된다. 북송의 화공 중에 ‘원행자(願行者)’가 없게 되자, 고려의 화사들이 직접 모사하려 입송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북제 때 건국사로 창건되고 초당(初唐) 때에 개칭된 상국사는, 북송 초에 새로운 문화적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 황제의 사찰로 도성 중앙에 대폭 개·증축하여 ‘대상국사’로 사액(賜額)되며 거듭난 것이다.<sup>23</sup> 962년 화재 이후 순차적으로 개·증

18 『고려사』 권9 문종 33년 7월 5일과 문종 34년 7월 6일조 참조. 문종 33년에는 신종이 의로 관련인 88인과 100종의 약품을 내역과 함께 보내왔다.

19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권40, 『樂律』 참조.

20 문종은 흥왕사가 창건되자 5주야 동안 연등대회를 열었으며, 대궐에서 사찰 문까지 채봉(綵棚)을 연달아 잇게 하고 밤에는 연로에 등불 산(燈山)과 횃불 나무(火樹)를 만들게 하여 불빛을 낮처럼 밝혀 그 성대함이 고금에 없었을 정도였다. 『고려사』 권8, 세기8, 문종21년 1월 19일조 참조.

21 정선모, 앞의 논문, p.241 참조.

22 郭若虛, 『圖畫見聞志』 권6 近似 『고려국』, “丙辰冬復遣使崔思諒入貢 因將帶畫工數人 奏請模寫相國寺壁畫歸國 詔許之 於是畫模之持歸 其摹畫人 頗有精於工法者.” 광약허는 최사량을 최사훈으로 표기했는데, 『고려사』에 기록된 최사량으로 수정해야 한다. 홍선표, 『고려시대의 일반회화』, 『조선시대 회화사론』(문예출판사, 1999), p.132 참조. 최사훈은 최사량의 동생으로 1078년 5월에 고려에 온 북송 사신을 공부상서 문황(文晃)과 함께 접대했다. 당시 최사훈은 호부시랑이었다. 『고려사』 권9, 세기9, 문종32년 5월조 참조.

23 북송대 상국사의 연혁과 사찰 장엄에 대해서는 塚本鷹充, 『皇帝の文物と北宋初期の開封(下)―啓聖禪院』

축하면서 개보년간(968~975)에 후촉서 입조한 석각(石恪)이 칙명으로 상국사 벽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sup>24</sup> 본격적인 개조는 977년 무렵에 화북 출신의 한림대조 고익(高益)이 대전인 미륵전의 벽화를 제작하면서부터였다. 이때 벽화의 축소본을 별도로 그려 내부(內府)에 소장했는데, 후대의 범본(範本) 역할을 하기도 했다.<sup>25</sup> 그리고 『화사회요(畫史會要)』에 의하면, 고익이 벽화를 그릴 때 “수묵과 바위에선 문귀가 아니면 이를 수 없다”며 오월국 출신으로 정밀 산수인물화에 뛰어나 ‘연가 경치(燕家景致)’로도 지칭되는 연문귀(燕文貴)를 강력 추천해 보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sup>26</sup>

995년 무렵 대전인 미륵전의 회랑 2동이 훼손되었을 때 태종이 대규모 중수를 명하여 한림대조 고문진(高文進) 등이 고익의 축소본인 ‘부본소양(副本小樣)’에 의거해 이모한 바 있다. 그리고 1065년의 대홍수로 개봉의 변하(下河)가 범람하여 상국사의 네 회랑이 물에 잠겨 고문진과 왕도진(王道眞), 이용급(李用及)과 이상곤(李象坤)이 그렸던 장벽만 남게 되었다. 파악히는 “지금 함께 남아있으니 모두 기적(今並存之 皆奇跡也)”이라 하였다. 나머지는 무너지고 망가졌는데, 파손된 벽화를 희녕년간(1068~1078)에 당시 명화가 이원제(李元濟)와 최백(崔白) 등을 동원하여 내부 소장의 축소본을 사용해 다시 중수하면서 ‘신의(新意)’를 더해 복구했다고 한다.<sup>27</sup>

이와 같이 북송 초·중기를 통해 개·보수된 상태의 상국사 벽화를 문종이 심혈을 기울여 왕실사찰로 건립한 흥왕사의 장엄화를 위해 모사해 온 것이다. 가려서 뽑은 상주 승려가 천여 명에 달하게 되는 흥왕사는 1067년 1차 준공 3년 뒤인 1070년에 미륵상을 모신 ‘3층 대전(三層大殿)’의 거대한 자씨전(慈氏殿)을 완공하고 궁성에 버금가는 성벽을 쌓은 바 있다.<sup>28</sup> 그리고 1077년에 금자화엄경을 새로 조성했으며, 1078년에는 은 427근으로 형태를 만들고 금 144근으로 표면을 도금

大相國寺をめぐる文物とその意味について, 『美術研究』406(2012. 3), pp.391-416에서 다루었다.

24 鄭方坤, 『五代詩話』 권9 「石恪」, “開寶中王師下西蜀遣名畫 入京恪在其數宣於相國寺畫壁工畢 上狀乞歸奉勅任便出京 卒於道中” 석각은 상국사 벽화 완성 후 귀향하던 도중에 사망했다고 한다.

25 곽약허, 앞의 책, 권6 近似 「상국사」 참조.

26 朱談聖, 『畫史會要』 권2 「북송」, ‘燕文貴’ “多畫山水人物 貨於天門之道 待詔高益見而驚之 遂問於太宗 且曰 臣奉詔寫相國寺壁 其間樹石 非文貴不能成.”

27 1065년의 수해로 입은 대상국사의 피해와 보존 및 복구 내용은 곽약허, 앞의 책 권6 近似, 「相國寺」에 기록되어 있다.

28 『고려사』 권8, 세가8, 문종 24년 2월 병신조, 참조.

한 ‘홍왕사 금탑’을 완성했는데,<sup>29</sup> 벽화도 이 무렵 전후하여 ‘장엄불사’를 완료하기 위해 상국사의 벽화를 ‘모득(模得)’하려 한 것이 아닌가 싶다.

홍왕사의 대전이 북송 황실 사찰 상국사와 동일하게 중문에서 회랑에 둘러싸인 자씨전=미륵전이었기 때문에 대전 내부와 회랑의 벽화만 이모한 것인지 앞서 언급했듯이 “상국사 벽화 모사를 주청하자 (황제가)조서를 내려 허락하니 모두 전사하여 가지고 돌아갔다”는 기록 그대로 다른 전각의 벽화도 전부 이모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고려도경』에 기재된 고려 사신이 신종황제께 아뢰고 “모득상국사본(模得相國寺本)” 했다는 내용도 내부에 소장된 상국사 벽화 축소본인 ‘부분’을 얻어 이모했다는 뜻인지 원본을 직접 옮겨 그린 것인지도 알 길이 없다.<sup>30</sup> 당시 고려의 거찰에는 영선과 불상 등의 건축과 불교미술품의 제작에 필요한 일정 규모의 장인 조직이 상주했기 때문에,<sup>31</sup> 홍왕사의 전업 불화공도 따라갔는지 역시 확인하기 어렵다. 아무튼 벽화의 이모는 고문진이 터럭 하나 차이 없이 하기 위해 투명도가 높은 ‘납지(蠟紙)’를 대고 필법을 본뜬 것 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추측된다.<sup>32</sup>

홍왕사 벽화로 옮기기 위해 1076~1077년의 고려사절단이 수행화사를 통해 모사할 무렵의 상국사 미륵전에는 동벽에 고익(高益)이 산수화에 능한 연문귀의 보조로 제작한 ‘아육왕등변상도(阿育王等變相圖)’와 ‘치성광구요도(熾盛光九曜圖)’, 서벽에는 작가 미상의 ‘불항귀자모계우도(佛降鬼子母揭盂圖)’가 봉안되어 있었다. 그리고 ‘문무(門廡)’ 즉 익랑의 동벽에 왕도진의 ‘급고독장자매기타태자원인연도(給孤獨長子買祇陀太子園因緣圖)’와, 이용급과 이상근이 합작한 ‘뇌도차투성변상도(牟度叉鬪聖變相圖)’ 서벽에 고문진의 ‘대항마변상도(大降魔變相圖)’와 왕도진의 ‘지공변십이면관음상(誌公變十二面觀音像)’이 현존한다고 했다.<sup>33</sup>

고익의 벽화 맞은편에 그려진 부처가 발우를 들어 올리려는 귀자모를 항복시

29 『고려사』 권9, 세가9, 문종 32년 7월과 문종 34년 6월조 참조.

30 조선 후기의 韓致堦(1765~1814)은 『海東繹史』 권46, 藝文志 5 ‘畫’에서 『도화견문지』의 내용을 “相國寺模畫帖”으로 이해하기도 했다.

31 홍대환, 『고려시대 工匠운영과 성격 고찰: 조탑 공장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3-1(2012. 4), p.230 참조.

32 劉道淳, 『聖朝名畫評』, 권1 「인물문」, 「高文進」 “相國寺高益畫壁 經時把剝 上惜其精筆 將營治之 詔文進曰 丹青誰如益者 對曰 臣雖不及 請以蠟紙模其筆法 後移於壁 毫髮較益無差矣.”

33 신종년간의 상국사 벽화 화제는 곽약허의 『도화견문지』와 유도순의 『성조명화평』, 孟元老의 『東京夢華錄』, 李濂의 『汴京遺迹志』 등에 수록되어 있다.

킨 ‘불항귀자모계우도’는 맹원로(孟元老)의 『동경몽화록』(1147)에 기재된 것으로, 화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모두 “국조명공필적(國朝名公筆跡)”이라 하였다.<sup>34</sup> 『도화견문지』에 고익이 앞에서 언급한 벽화 ‘등(等)’을 그렸다고 한 것으로 보면 당시 한림도화원의 고위직 화사인 한림대조였던 그가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1065년의 대흥수로 파손된 회랑의 벽화 수복에는 이원제와 최백이 경합을 벌이며 참가했으며, 이원제가 가장 많은 ‘불포’를 그렸고, 최백은 그 다음으로 ‘치성광 11요도’와 ‘좌신(坐神)’ 및 ‘불일포(佛一鋪)’를 제작하였다. 도석화와 촌가 풍경에 뛰어난 진탄(陣坦)도 이 때 북쪽 회랑에 ‘고승’을 그렸다고 한다.

대전과 회랑 이외에도 고문진은 미륵전 뒷벽에 “벽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如出牆壁)” ‘격탑천왕(擎塔天王)’ 즉 탑을 든 북방천왕을, 자성각이 있는 후문 안쪽의 동서벽에 산서성의 오대산과 사천성의 아미산에 거주하며 설법하던 문수와 보현보살의 성지신앙을 반영한 ‘오대·아미산문수보현변상도’를, 바깥쪽 서벽에는 ‘신(神)’을 그려 넣었다.<sup>35</sup> 그리고 북송 개국 초의 왕인수(王仁壽)가 그린 상국사 정토원의 ‘팔보살상’과, 문수원 양 벽에 ‘정토’와 ‘미륵하생도’가 1069년경 찬술된 『오대명화보유』와 1074년의 『도화견문지』에 모두 당시 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sup>36</sup>

고려 사절이 수행화사를 동원해 ‘모득’했을 이러한 상국사의 불교 벽화는 북송의 태조가 총애한 고익을 중심으로 개국 초에 조성된 것과, 태종의 어람용 화사로 995년의 대중수 책임자였던 고문진이 고익의 부분에 의거해 털끝만큼의 오차 없이 ‘그대로 옮겨(復移)’낸 것들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파악된다. 고문진은 큰아들 고희절(高懷節)을 조수로 쓰기도 했지만, 왕도진과 이용급, 이상곤 등, 모두 그를 따르던 당풍(唐風)의 전통이 강한 사천성 출신의 후배 화사들이었다. 광약허에 의하면 지금 도화원에서 전부 고문진을 배우지만 그와 방불한 수준의 사람은 아직 없다고 했을 정도로 뛰어났었다. 황정견은 “고익과 함께 대고(大高)와 소고(小高)로 지칭되는데”, 특히 ‘조소주상(雕塑鑄像)’ 분야에서도 규범으로 따르던 ‘조오이체(曹吳二體)’인 ‘조중달(曹仲達)과 오도자의 화풍을 겸비한 “금위한림화공지종(今爲翰林畫工之宗)” 또는 “한림공지금이위사(翰林工至今以爲師)” 즉 북송 초 한림도화

34 孟元老, 『東京夢華錄』 권3 「相國寺萬姓交易」 참조.

35 광약허, 앞의 책에서는 ‘경탑천왕’이라 했고, 曹學佺, 『蜀中廣記』 권107 「畫苑記」 3에는 ‘북방천왕’으로 기재했다. 대전 후문의 벽화에 대해서는 유도순, 앞의 책, 권1 ‘고문진’ 참조.

36 劉道淳, 『五代名畫補遺』 「인물문」, ‘왕인수’ “大相國寺淨土院大殿前畫八菩薩 今見存焉者”; 광약허, 위의 책, 권2, ‘왕인수’ “相國寺文殊院有淨土彌勒下生二壁 淨土院有八菩薩像…傳於世.”

원 화사들의 지도양식으로 ‘촉인(蜀人) 필법을 많이 전한다’고 하였다.<sup>37</sup>

따라서 당시 상국사 벽화는 태조와 태종의 충애를 각각 받으며 북송 초의 ‘불도(佛道)’ 즉 도석인물화 분야를 석권하며 ‘대고와 소고’ 한림대조로 명성이 높던 고익과 고문진의 ‘골기(骨氣) 강한 채묵풍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 같다. 고익의 화풍이 “모두 형사를 취하고(皆取形似)” “우부기염(尤富氣焰)” 즉 “불꽃처럼 대단한 기세에 성했고” “용묵중부색경(用墨重傳色輕)”이라고 한 것으로 보면 사실적이면서도 약동하는 묵조 선묘를 중시한 오도자의 ‘부채간담(傳彩簡淡)’한 ‘오장(吳裝)’과 같은 도석화풍에 토대를 둔 것으로 보인다. 북제 조중달의 화법도 겸비하여 북송 원체풍 불화의 지도양식을 이룬 고문진의 경우 또한 같은 경향의 양식을 지녔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중달도 옷주름 표현에 있어서는 오도자의 ‘오대당풍(吳帶當風)’과 다른 ‘조의출수(曹衣出水)’의 특징을 지녔지만, 선묘적 주체화의 성향에서는 양자가 같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sup>38</sup> 이들 작품 중 목판화이지만 유일하게 현재 전하는 고문진의 <미륵보살도><sup>도1</sup>를 통해 그 편린을 엿볼 수 있다. 984년에 제작된 <미륵보살도>는 고문진이 밑그림을 그리고 월주 승려 지례(知禮)가 조판한 것인데, 983년 입승했다가 3년 후에 귀국한 도다이(東大



1  
고문진(高文進)  
<미륵보살도>  
북송 984년  
판화  
교토 세이리지

37 곽약하, 앞의 책, 권1 「論曹吳體法」; 黃庭堅, 『山谷集』 권27 「書土星畫」; 董更, 『書錄』 권 중 「李建中」 참조.

38 조중달 화풍에 대해서는 西林孝浩, 「曹仲達繪畫樣式の復元」, 『立命館言語文化研究』 30:1(2018. 3), pp.129-160; 黃夏, 「北齊畫工曹仲達のについて」, 『早稻田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 62:3(2017. 9), pp.294-296 참조.

寺) 승려 조넨(喬然)이 가져온 우전왕사모상 모각본으로 만든 교토 세이료지(清涼寺) 〈석가여래입상〉 복장물로 납입된 것이다.<sup>39</sup> 최백이 대전 회랑 서벽에 그린 삼존 불로 추정되는 ‘불일포’가 “동근 후광이 밝게 투명하고 빛의 필세가 움직이려는 것 같다”고 한 것도,<sup>40</sup> 이러한 양식적 맥락에서 이해된다.

원본이든 부분이든 상국사에서 모사해 왔던 이와 같은 홍왕사 불화는 1123년 개경에 온 서공이 직접 목격했는데, “문종이 신종께 요청해 모듬해 온 것”이 “양 벽에 그려져 있다(兩壁有畫)”고 했으며, “지금까지 보배처럼 아낀다(至今寶惜也)”고 하였다.<sup>41</sup> “규모가 매우 컸던(規模極大)” 홍왕사의 ‘양 벽’은 대전 벽면이나 회랑 벽만을 제한적으로 가리킨 것이 아니라, 모든 벽면을 일괄적으로 지칭한 것이 아닌가 싶다.

아무튼 앞서 언급한 상국사의 벽화 중 치성광여래와 미륵하생 관련 불화는 고려 말기의 작품이 현재 남아있는 것이다. 치성광여래와 구요 또는 십일요는 왕건의 할아버지로 알려진 작제건 설화에 이미 등장했고, 태조 왕건 때 성수신앙과 결부되어 ‘구요당’을 창건한 적도 있으며, 인종 때는 내전에서 십일요에 초제를 지내기도 했지만, 문종이 재변의 빈번함을 법력으로 물리치고 나라의 복리를 위해 홍왕사를 소재도량(消災道場)으로도 창건했기 때문에,<sup>42</sup> 가장 적극적으로 이모되었을 것이다.

‘치성광구요도’는 별의 움직임에 따라 운명을 점치고 닥쳐올 재앙을 소멸시켜 이른바 직성(直星)을 푸는 성수신앙과 결부된 ‘치성광불강구요성도(熾盛光佛降九曜星圖)’이다. 북극성을 인격화한 치성광여래가 소 수레를 타고 그 주위로 일월화수목금토와 일식과 월식을 일으키는 음요(陰曜)인 나후와 계도 등 아홉 개의 빛나는 직성을 특징적인 지물과 관을 쓴 인물상으로 형용하여 둘러싼 장면으로 나타냈을 것으로 보인다.<sup>43</sup> 1065년의 대홍수 이후인 1070년 무렵의 수복 때 제작된 최백의 ‘치성광십일요도’도, 고익의 내부 소장 ‘부분소양(副本小樣)’을 참고했다면 유사

39 長岡龍作, 「清涼寺釋迦如來立像」, 『世界美術全集』 東洋編5(小學館, 1998), pp.327-330. 참조.

40 곽약하, 앞의 책, 권4, 「崔白」, “相國寺…廊之西壁 有佛一鋪 圓光透徹 筆勢欲動.”

41 서공, 앞의 책, 권17, 「王城內外諸寺」, “興王寺… 規模極大… 兩壁有畫… 此文王遣使告神宗皇帝 模得相國寺本.”

42 『고려사』 권1, 高麗世系와 권1, 세가1, 태조 7년 8월조; 권7, 세가7, 문종9년 10월 12일조 참조.

43 치성광여래 도상에 대해서는 정진희, 「한국 치성광여래 신앙과 도상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 pp.36-44 참조.

한 양태였을 것이다. 북극은 어좌를, 북극성은 군주를 상징하기도 했기 때문에 치성광여래 불화는 통치 질서와 왕권강화의 시각물로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추측된다. 또한 흥왕사는 3층의 자씨전=미륵전을 대전으로 건립했기 때문에 오도자화법을 정묘하게 구사했던 왕인수의 '미륵하생도'도 재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국사의 벽화는 불교 설화나 고사를 담은 변상도가 주종을 이루었는데, 기록이나 현존하는 고려시대 작품 중에서 대부분 찾아볼 수 없는 화제들이다. 북송 초인 태조 때의 한림대조 고익이 황명으로 그린 '아육왕등변상도'에 대해 유도순의 『성조명화평』에는 아육왕이 승물을 탄 모습과 전사 및 녹마(鹿馬) 등이 묘사되어 있다고 했으며, '아육왕전상(阿育王戰像)'이라고도 했다. 태조가 와서 보고 고익에게 병법(兵法)을 환히 아느냐고 물은 것과, '경(經)'을 모사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아육왕경'을 비롯해 그와 관련된 경전의 내용 중 전투하는 장면의 아육왕변상을 그린 것이 아닌가 싶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교한 산수경관 묘사에 능했던 연문귀의 재능을 발견하고 보조로 적극 건의하여 수목과 바위를 그리게 하며 함께 작업한 것으로 보면, 산수인물화 형식의 벽화였을 가능성도 추측된다.

귀자모 관련 경전은 종류가 매우 많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중에서도 『잡보장경』의 106화인 「귀자모실자연(鬼子母失子緣)」을 나타낸 것이며, 왕규(王逵, 1100~?) 등이 1167년에 산서성 암산사 문수전 동벽에 그린 <귀자모경변상도>와의 연관성이 주목된다. 왕규는 28세 때 나라가 망하자 금나라의 궁정화사가 된 북송 화사출신으로, 암산사 벽화가 양식적으로 북송 화풍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아 상국사 벽화를 수용했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sup>44</sup> 그러나 '불항귀자모게우도'가 <귀자모경변상도>처럼 귀자모의 악행에서 불법에 귀의하는 전 과정을 도해한 것인지, 귀자모를 교화시키는 인연설화의 절정인 부처와의 대립 장면을 위주로 그린 '귀자게발도' 또는 '게발도'와 같은 명청대 화제의 선구적인 사례인지는 잘 알 수 없다. '불항귀자모게우도'도 '아육왕변상도'와 같이 연문귀가 보조했다면 배경산수의 표현이 탁월하다고 파악된 변상도와의 관련성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다.

왕도진의 '급고독장자매기타태자원인연도'는 사위성의 거상 급고독장자가 기타태자의 원림을 구입해 정사를 지어 부처께 바친 기원정사 보시 인연설을 그린 것

44 황선우, 「산서성 번치현 巖山寺 <귀자모경변상도> 연구」, 『동악미술사학』 22(2017. 12), pp.77-80 참조.



이고, 이용급과 이상곤 합작의 ‘노도차투성변상도’는 기원정사 건립을 방해하는 노도차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리불이 법술과 환술로 퇴치하는 광경을 도해한 것이다. ‘노도차투성변상도’의 경우 『현우경』 ‘수달기정사품’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형용한 것인데, 만당과 오대에 조성된 돈황 막고굴 제196굴과 146굴 등에서 그 전례를 볼 수 있다.<sup>45</sup> 그리고 고문진의 ‘대항마변상도’는 불전도 설화와 관련된 것으로, 석가모니가 깨닫는 순간에 모든 마귀의 유혹과 협박을 물리치고 정각을 성취한 정경을 나타낸 것이다. 왕도진의 ‘지공변십이면관음상’은 양무제가 고승 지공의 초상을 장승요에게 그리게 하자 십일면관음으로 변신했다는 고사를 그린 것인데, 남송 주계상(周季常)의 1178년 〈오백나한도〉(보스턴미술관) 중 ‘응신관음’의 장면을 연상시킨다.<sup>46</sup>

‘해동천자’의 원찰인 홍왕사를 대궐의 위용에 버금가는 ‘극대’의 규모로 건립한 문종이 북송 최고의 황실 사찰인 대상국사와 같은 장엄을 위해 모독한 이들 벽화는, 대부분 불전도나 승불 또는 흥불 제왕의 설화나 고사를 담은 변상도로, 성종 때 폐지된 연등회와 팔관회의 부활을 공식화하고, 승려의 타락을 정화한 불교 중흥 군주의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종이 당시 중풍의 일종인 풍비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상국사 인제원에 있던 의학의 최신 지식 보급과 관련된 ‘침구도동인(鍼灸圖銅人)’도 이모되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sup>4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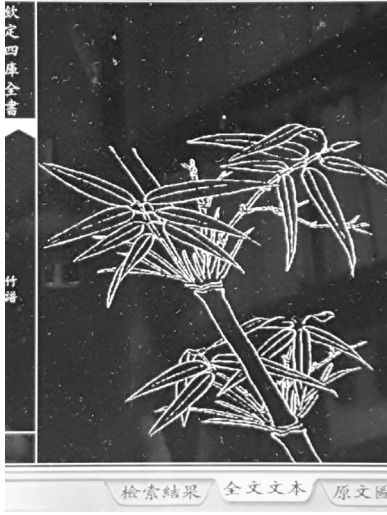
『도화견문지』에 의하면, 상국사에는 불화 벽화뿐 아니라, 구경 오는 사람이 성시를 이루었다는 승려 덕부(德符)가 그린 권정원 대청 벽의 ‘송백도(松柏圖)’를 비롯해, 관동(關同)을 배워 그 요체를 얻은 왕단(王端)의 정토원 벽화와, 거연(巨然) 화풍과 유사하게 산수를 잘 그린 계조(繼肇)의 자성각 병풍 등도 있었다. 그리고 곽사(郭思) 편찬의 『화기(畫記)』에는 이원제가 제작한 상국사 서벽에 곽희의 ‘계곡평원’이 그려져 있다고 했다. 그리고 『성조명화평』에 1036년 무렵 개봉윤(開封尹)이던 이성(李成)의 손자가 상국사 승려 혜명에게 부탁해 돈을 아끼지 않고 이성의 작품을 상당량 구입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상국사의 일반회화도 모사의 대상이 되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벽화로 그려진 덕부의 ‘송백도’와 곽희의 산수화 등을 고려 사절이나 화사들이 관람했

45 장희정, 「돈황 막고 제196굴 〈노도차투성변상도〉의 검토」, 『선문화연구』(2010. 12), pp.221-269 참조.

46 곽약허, 박은화 옮김, 『곽약허의 도화견문지』(시공아트, 2005), p.303의 역사 주석과 p.302의 도34 참조.

47 인제전(仁濟殿)의 침구도(針灸圖)와 동인(銅人)에 대해서는塚本麿充, 앞의 논문, p.406 참조.



檢索結果 全文文本 原文圖



藝術類, 書畫之屬, 竹譜, 卷四

을 가능성은 분명하다. 당시 개봉의 중서성과 추밀원, 한림학사원 등의 관청에도 동우(董羽)와 거연에서 연숙(燕肅)을 거쳐 광희에 이르기까지 북송 산수화의 황금기를 연 대가들의 벽화와 병풍으로 장식되어 있었기 때문에,<sup>48</sup> 관심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도 견문을 넓히려 했을지 모른다.

앞서 언급한 1073년 고려 사신이 황제를 알현한 수공전에는 최백을 비롯해 화원 화가들이 학과 대나무를 각각 한 폭씩 그려 합작한 '죽학도'와 같은 어병이 쳐 있었다.<sup>49</sup> 최백이 그중 뛰어나게 잘 그려 즉시 도화원 예학에 제수되었고 신종의 총애를 받았는데,<sup>50</sup> 원대 이간(李衍)의 『죽보』에 '뛰어나게 아름답게(絶佳)' 그렸다는 최백의 '후죽(篔竹)'을 예시한 바 있다.<sup>도2</sup> 양자강 이남 절강 양편이 산지인 후죽은 잎이 굳세고 죽간이 굵은 '강죽(剛竹)' 형인데, 센오쿠하쿠고칸(泉屋博古館) 소장 고려 말 〈수월관음도〉의 죽엽 형태나 엽맥선의 표시, 죽간 등이 이러한 후죽에 성죽(成竹)류를 절충한 유형으로 주목된다.<sup>도3, 4</sup>

한편 도화 구매와 화공 초청, 상국사 벽화 이모 등, 고려 사절의 주청에 특별

- 2 이간(李衍)  
『죽보(竹譜)』  
『후죽(篔竹)』  
원
- 3 작가미상  
〈수월관음도〉(부분)  
고려 말기  
교토 센오쿠하쿠고칸
- 4 이간(李衍)  
『죽보(竹譜)』  
『성죽(成竹)』  
원

48 小川裕充, 「院中の名畫-董羽·巨然·燕肅から郭熙まで」, 『鈴木敬先生還曆記念中國繪畫史論集』(吉川弘文館, 1981), pp.25-84 참조.

49 광약허, 앞의 책, 권4, 技藝下, 崔白조 참조.

50 『선화화보』 권18 「화조」 4 '최백'조 참조.

히 배려하여 모두 허락한 신종은 그가 좋아하던 곽희의 '추경도(秋景圖)'와 '연람도(煙嵐圖)'를 하사하기도 했다.<sup>51</sup> 곽희는 신종 즉위 다음 해 원년인 1068년 2월, 중년이 넘은 나이로 하양에서 개봉으로 상경하여 신종 재위기간(1067~1084)에 전성기를 누리며 가장 많은 활약을 했었다. 신종 재위 중 고려 사절은 모두 5회 이루어졌는데, 북교 이듬해인 1073~1074년에 도화 구매와 화공 초청을 주청했던 사행시어서원(御書院)의 예학(藝學)이 된 곽희의 산수화를 하사한 것이 아닌가 싶다.<sup>52</sup> 그렇다면 곽희의 '추경도'와 '연람도'는 1072년의 <조춘도>(타이베이 고궁박물관) 제작 무렵의 작품으로 그 화풍과 유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곽희의 최고 명작으로 꼽히던 '춘강효경도'와 '추산평원도'와 같은 봄과 가을의 경관을 그린 그의 대표적인 화제이기도 했다.<sup>53</sup>

북송 '월체산수'의 '종사(宗師)'로 숭앙된 곽희의 작품은 이후 고려와 조선 초를 통해 수집 대상이 되었으며, 여말선초에 산수화의 '진독보(眞獨步)'로 지칭되었을 정도로 화명이 자자해졌다.<sup>54</sup> 현존하는 고려시대 화적인 불교회화의 바위와 수목 등의 산수표현에서도 그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지만, 15~16세기의 조선 전기에 있어서 곽희의 이곽파 화풍은 산수화의 종법(宗法)으로 고전적 역할을 하게 된다.

신법당의 지지를 받은 신종의 '연려제요책'과 문종의 선진문물 수용 의지가 부합되어 본격화된 양국의 회화교류는 고려 사절의 접대나 환영 또는 환송 연회에 참여한 소식과 왕선(王詵) 등 북송의 시서화와 감평의 대가들과의 교류를 통해서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sup>55</sup> 1085년 입송했다가 다음 해 귀국한 대각국사의 천도 그곳에서 제자로 삼은 북송 승려 희중(希仲)으로부터 도화 3축을 헌상받은 바 있다. 하나는 "(의천이) 유람했던 곳을 그린 것으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하니 회고하며 자주 보아주시기 바란다"고 했으며, 2점은 모두 웅대하고 화려하게 건립된 장경각(藏經閣)을 그린 것이라 하였다.<sup>56</sup> 북송의 기행사경도와 실경 계화(界

51 郭思, 「畫記」, "思家先子手志載... 又作秋景煙嵐二賜高麗."

52 곽희의 그림을 고려사절단에게 준 하사 시기에 대하여 塚本鷹充도 회녕 7년(1074)으로 보았다.

53 葉夢得, 「石林燕語」 권4, "學士院郭熙畫春江曉景爲尤工" 蘇軾, 『東坡全集』 권16과 권17 「郭熙畫秋山平遠」 참조.

54 홍선표, 「조선시대 문사들의 고동서화 수집과 감상 취미」, 『조선회화』(한국미술연구소CAS, 2014), pp.17-18 참조.

55 李貴, 《全宋詩》中所見宋朝與高麗之文化交流, 『中國文學研究』 36(2008. 6), pp.83-84 참조.

56 의천, 『대각국사외집』 권4 「第四」, "希仲再啓 前所獻圖三軸 已聞通皇 貴得法師 親垂觀覽 一則見往日所遊之地 儼在目前 顯望頻垂瞻顧 二則都經閣 結構宏麗."

畫)의 화적이 이러한 사적 교류로 유입되던 사실을 말해주는 자료로서 주목된다.

그리고 1073년의 사행 이래 정례화된 것으로 보이는 고려사절단 수행화사들의 또 다른 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던 것 같다. 1071년에 항주에서 고려 사절을 접대했던 소식은 예부상서이던 1092년 반(反)고려파인 구법당의 입장에서 고려 사절의 폐해를 상소한 ‘오해론(五害論) 가운데 네 번째로 지적한 “지금 (고려) 사절이 이르는 곳마다 산천형승을 그림으로 그려 허실을 엿보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면,<sup>57</sup> 수행화사들이 중국의 산수경관을 묘사했음을 알 수 있다. 소식은 또 과거 급제 동기인 영숙(穎叔) 장지기(蔣之奇, 1031~1104)의 시에 차운하며 협주로 쓴 글에서 “고려 사절이 개봉에 와서 매번 승경에 이르러 번번이 그림으로 그려서 돌아간다”고 하여,<sup>58</sup> 고려 화공의 중국 형승 묘사가 상례화된 것처럼 기술하였다. 사절단의 수행화사 제도는 인종 2년(1124)의 사은사절단에 동행한 이녕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들이 중국 산천을 매번 실사(實寫)했다는 사실은 고려시대뿐 아니라 한국회화사에서의 실경산수화 전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한편 1084년 8월 북송 사신으로 고려에 다녀온 목보(穆父) 전협(錢勰, 1034~1097)도 소식, 황정견과 가깝게 교류하며 시서에 능했던 서화애호가로 범관의 <계산행려도>(타이베이 고궁박물관)와 양결(楊傑)의 ‘노자출관도’의 수장자이기도 했다.<sup>59</sup> 문종이 승하하자 북송의 신중은 한 달 동안 불공을 드리도록 하는 한편, 제전사(祭奠使)와 함께 별도로 우간의대부였던 전협을 조위사로 보냈는데,<sup>60</sup> 서첩선(書摺扇)으로 추정되는 고려 특산품인 ‘송선(松扇)’을 구해 황정견에게 제시와 함께 선사하자 이에 대한 차운시를 읊은 바 있다.<sup>61</sup> 소식을 따른 문사 장뢰(張

57 蘇軾, 『東坡全集』 권63 「論高麗買書利害劄子」, “高麗名爲慕義來朝 其實爲利…今使者所至 圖畫山川毋須券窺測虛實.”

58 위의 책, 권21 「車韻蔣穎叔二首」, “似知金馬客…乞與三韓使 新都到樂浪(時高麗使在都下 每至勝境 輒圖畫以歸).”

59 陳韻如, 『范寬〈谿山行旅圖〉』, 『故宮文物月刊』 282(2006), pp.18-25와 彭大翼, 『山堂肆考』 권138 「老子出關圖」, 참조. 양결은 사대부 문인화가이며 서화수장가로 도석화에도 능했으며, 대각국사 의천이 1085년 입송하여 1년이 머물 때 관반사로 동행하여 오군과 오흥, 회계의 삼오(三吳) 세 지역을 유력한 바 있다.

60 『宋史』 권487 列傳247 外國3 「高麗」 참조. 신중은 제전사 楊景略이 서장관으로 이지(李之儀)를 추천하자 그의 文名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여 물리치고, 학문이 넓고 기국(器局)=기량이 뛰어난 사람을 구하여 중서성에서 글을 시험한 뒤 파견하도록 했을 정도로 고려에 보내는 사절단의 학사나 문사의 재능을 중시하였다.

61 黃庭堅, 『山谷集』 권2 「次韻穆父贈高麗松扇」에 의하면 명품 고려 종이인 명견지(明繭紙)로 만들었는데, 초서의 교묘한 서법필획으로 쓴 시를 뜻하는 “銀鉤玉唾”라는 시귀로 보아 서첩선으로 추측된다. 황정견은 이를 통해 고려 문사의 고결함을 느꼈다고 했다.

耒, 1054~1114)에게도 주었던지 이에 사례하는 시를 남겼다.<sup>62</sup> 그리고 전협은 족제비털로 만든 고려 특산품인 '성성모필(猩猩毛筆)=황모필(黃毛筆)도 개경에서 구하여 매우 진귀하게 여겼다고 했다.<sup>63</sup>

북송의 철종이 1091년에 고려 사신 호부상서 이자의(李資儀)를 통해 고려에서 구하고자 한 도서 중에 『이아도찬(爾雅圖贊)』과 『삼보황도(三輔黃圖)』, 『영헌도(靈憲圖)』 등도 주목된다.<sup>64</sup> 『삼보황도』와 『영헌도』가 고려 비각에 소장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아도찬』의 경우 있었을 가능성이 추측된다. 진(陳)에서 초당까지 활동한 강권(江灌)이 상하 양권으로 찬술한 『이아도찬』은 장언원의 『역대명화기』 권3의 『술고지비화진도(述古之秘畫珍圖)』에 기재된 것인데, 당말 오대를 거치며 산실된 것이다. 청대의 증오(曾燠)가 '영인송본(影印宋本)'의 『이아음도(爾雅音圖)』를 중간하며 쓴 '이아도'의 유래와 전승에 의하면 그 도형을 그린 것이 정치하여 반드시 모본이 있을 것이니 곽박(郭璞)의 옛그림 아니면 강권이 만든 것으로 보았다.<sup>65</sup>

동진 곽박의 『이아도』는 산실되고 '주(注)'만 전하기 때문에,<sup>66</sup> 증오가 본 송원대에 그려진 '이아도'는 철종의 요청으로 고려 수장본인 『이아도찬』을 '전사(傳寫)'한 부분이거나 이를 모본으로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중간본이 전하는 『이아음도』와 같은 도형과 설명으로 이루어진 동식물 중심의 도해(圖解)류 만물사전인데, 북송 황실로 보내졌을 부분의 그림을 고려 화사가 모사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것이다. 고려시대의 화훼, 화조, 영모, 어해류 등의 그림 및 문양도 이러한 '이아도'와 관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명대의 『삼재도회』와 『본초강목』 등 박물도감류의 선구적인 도회활동에 고려가 일정하게 기여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려는 숙종 5년(1100) 휘종의 등극을 축하하기 위해 입송한 사절단이, 천하의 모든 지식을 총괄하겠다는 의도로 송 태종의 황명으로 관련 서적을 집대성하

62 張耒, 『柯山集』 권10 「謝錢穆父惠高麗扇」 참조.

63 任淵 外, 『山谷詩內外集注』 권3 「和答錢穆父詠猩猩毛筆」, “錢總使高麗得猩猩毛筆甚珍之.”

64 『고려사』 권10, 세가10, 선종 8년 6월 18일조 참조.

65 김문기, 「근세 동아시아의 魚圖와 어류박물학: 「시경」과 「산해경」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105(2017. 12), pp.405-406 참조. 『爾雅』는 송대에 제정된 유교 경전 13경의 하나로, 경전의 단어를 해석한 가장 오래된 자서(字書)이며, 『草木蟲魚鳥獸畜』의 제장 항목에 삽화를 그려 넣은 것이 이아도(爾雅圖)이다.

66 朱彝尊, 『經義考』 권237 「이아」 2, “鄭樵曰 爾雅圖蓋本郭註爲圖 今雖亡有郭璞注.”

여 983년 편찬된 『태평어람』 1,000권을 구해왔는데,<sup>67</sup> 그 중에는 회화 관련 기록도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주례』에서 기술한 소학(小學)에 들어가서 배울 육예(六藝)를 ‘공예부(工藝部)’에 열거하면서 기존에는 없던 ‘화(畵)’를 사어서수(射御書數) 다음 항목으로 권750과 751에 배열하여 ‘교국자지예(敎國子之藝)’의 하나로 설정하고, 제자백가서를 비롯해 오대 이전 문헌에 수록된 그림에 관한 단편 기록을 집성해 놓은 것이다. 『논어』의 ‘회사후소(繪事後素)’론과 『진서』의 고개지(顧愷之) ‘전신사조(傳神寫照)’론, 『당서』의 왕유(王維) ‘천기비회자지소급(天機非繪者所及)’론과 염립본(閻立本)을 화사로 부른 일화를 비롯해, 『석명』과 『주례』, 『한비자』, 『회남자』, 『풍속통의』, 『서경잡기』, 『세설신어』, 『논형』 등의 문헌에서 발췌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고금명화록』과 손창지(孫暢之)의 「술화기(述畵記)」, 종병(宗炳)의 「화산수서」, 장회관(張懷瓘) 「화단(畵斷)」의 일부와, 장언원 「역대명화기」의 「서화지원류」, 「논화육법」, 「서역대능화인명(敍歷代能畵人名)」도 부분적으로 실려 있다.<sup>68</sup> 이들 기록은 고려시대의 회화 인식과 화론 전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sup>69</sup>

### Ⅲ. 예종과 인종대의 회화교류

북송과의 회화교류는 12세기 전반기인 1105~1146년 사이의 예종과 인종대에 이르러 한층 더 활발해진다. 이 시기는 중국 회화 역사상 황제로서 시서화에 가장 뛰어났던 휘종의 재위기간으로 중국의 ‘화학(畵學)’이 꽃피고 비약하던 전성기였다. 고려의 예종도 문치 강조와 함께 유학과 아악의 진흥에 힘쓰고 <도이자가>를 짓기도 했으며, 서화 전관처(展觀處)로 청연각(淸讌閣)을 세우기도 했다. 예종 때에는 ‘화국(畵局)’을 설립한 것으로 추정되며, 화사를 시켜 양화루 경관을 두어

67 『고려사』 권1, 세가11, 숙종 6년 6월조; 양진성, 「『太平御覽』의 편찬에 대하여: 북송초 도서전적의 수집과 관련하여」, 『한국사학사학보』 33(2016. 6), pp.190-192 참조. 『태평어람』은 명종 22년(1192)에도 송 상인을 통해 유입되었다. 『고려사절요』 권13, 명종 23년 8월조 참조.

68 『古今名畵錄』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그림 관련 문헌으로, 동진 史道碩이 ‘田家十月圖’를 그렸는데 세상에서 보배로 여겼다는 기록을 발췌해 수록했다. 『태평어람』 권750, 공예부 7, 畵上 “古今名畵錄曰 晉有 史道碩 畵田家十月圖 爲世小珍.”

69 홍선표, 「고려시대의 회화이론」, 『미술사학연구』 187(1990. 9)과 앞의 책(1999), pp.160-189 참조.

폭 비단에 그리게 한 적도 있다.<sup>70</sup> 인종은 젊어서부터 재예(才藝)가 많고 음률에 밝았으며, 당숙인 현종에 이어 서화에 능하였다.<sup>71</sup> 그리고 1110년 전후하여 고려사절단의 일원으로 요나라에 간 호부원외랑 문공인(文公仁, ?~1137)이 개인적으로 가져가서 접빈자에게 '기완품'으로 서화부채를 주었는데, "이로부터 요나라 사람들이 매번 사절단에게 반드시 문공인의 예를 들며 끊임없이 요구하여 큰 폐단이 되었다"고 한 기사를 통해 초기에 이어 요나라와의 교류도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72</sup>

예종대의 북송과 회화교류는 1116년 사은진봉사절단의 입송이 주목된다. 예종 11년 정사 이자량(李資諫)과 부사 이영, 서장관 김부식과 정지상을 비롯해 고려사절단 293명이 7월 예성강의 벽란도항을 떠나 9월에 명주=영파에 도착 한 뒤 한 달가량 운하를 통해 개봉에 상경하여 5개월가량 체류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하며 북송의 화적을 접하였다.<sup>73</sup> 개봉에선 입송 고려 유학생들도 합류했다.

문인화가로도 추정되는 김부식과 정지상을 포함한 정사 일행은 황궁의 수흥전과 자진전에서 열린 휘종 탄신 기념행사에 참여했으며 '부의법궁(負辰法宮)'인 승정전에서 표문을 올린 뒤 예모전에서 베푼 어연(御宴)에 참석해 시문증답을 하였다. 그리고 경령궁 대명전의 신종 어용과 대성전의 공자상을 배알했는가 하면, 원구(圓丘)에서의 천제(天祭)를 참관하기도 했다.<sup>74</sup> 당시 고려사행을 접대한 관반은 휘종의 측근인 왕보(王輔)였는데, 황명으로 어부(御府) 수장의 옛 기물 1만 점 가운데 500여 점을 골라 1119년부터 그림으로 그려 정리한 『선화박고도(宣和博古圖)』 30권의 편찬을 주관한 인물이었다.

다음 해 1117년 2월 11일에는 선화전에서 휘종이 정사 일행에게 “태평예람도 2책과 성평곡연도(成平曲宴圖)·선산금궐도(仙山金闕圖)·봉래서애도(蓬萊瑞靄圖)·고야도(姑射圖)·기봉산기도(奇峯散綺圖)·촌민경세도(村民慶歲圖)·부자행단도(夫子杏壇圖)·춘교경목도(春郊耕牧圖)·옥청화양궁경운도(玉淸和陽宮慶雲圖)·균장종학도(筠莊縱鶴圖)·추성흔락도(秋成欣樂圖)·백옥루도(白玉樓圖)·당십팔학사도(唐十八學士圖)·하경풍년도(夏景豐稔圖)·태상도개도(太上度開圖) 각 1권씩

70 홍선표, 앞의 책(1999), pp.136-137 참조.

71 『고려사』 권17, 세가17 「金富軾贊」 참조.

72 『고려사』 권125, 열전38 '문공인'조 참조.

73 豊島悠果, 「1116年入宋高麗使節の體驗」, 『朝鮮學報』 210(2009. 2), pp.11-15 참조.

74 위의 논문, p.14 참조.

을 열람하게 하였다.”<sup>75</sup> 고려 사절의 정사일행은 북송 황실 화적의 관람자가 되어 ‘감상(鑑賞)’을 체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김부식의 글에 기술되어 있듯이 그림 제목에 ‘도’를 접미어로 부기했는데, 이는 후한 때 대두하여 남북조시대와 수당대를 통해 확산되고 북송대에 본격화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선 최치원의 『계원필경』에 처음 등장했고, 고려 중기 이후 관행화되었다.<sup>76</sup> 이처럼 작품 제목에 ‘도’를 붙이는 관례는 근대기를 통해 ‘서화’에서 ‘미술’로 전환되면서 표기에서 점차 사라졌으며 1901년경 일본에서 이를 공식화하며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sup>77</sup>

아무튼 송정전 서북쪽에 위치한 선화전은 황실 소장품의 서화나 서적, 고기물(古器物) 가운데 귀중한 것을 보관하던 곳이다.<sup>78</sup> 휘종이 이곳에서 고려 정사 일행에게 특별히 보여준 ‘태평예람도’를 ‘2책’으로 명기한 것으로 보면, 삼국시대의 조불흥(曹弗興)에서 북송의 황거채까지 고금명인들의 그림 1500폭을 14종으로 분류해 집성한 《선화예람집》이 아니라, 어원에서 기르는 각지의 진금이수(珍禽異獸)와 기화요초(奇花瑤草) 가운데 휘종이 기이한 것을 골라 그 특성을 탐구하고 형태를 그려 모은 《선화예람책》이 아닌가 싶다.<sup>79</sup>

황족의 생일을 뜻하는 성평절의 연희 광경을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성평곡연도’를 비롯한 15권의 그림은, 산에 사는 신인(神人)을 그린 이공린(李公麟)의 ‘고야도’를 제외하면 모두 휘종의 작품이다. 그 중 ‘균장종학도’와 ‘기봉산기도’에 관해선 등촌의 『화계』에 내용이 실려 있다. 휘종이 정화 초인 1111년 무렵 그린 ‘균장종학도’는 다양한 학의 양태를 “오묘함을 다하여” 20폭에 담은 것이다.<sup>80</sup> 학들이 “날아 오르거나, 이슬에 놀라고, 바람과 더불어 춤추며, 하늘을 향해 울고, 깃털을 닦는” 자태는 『도화견문지』 「학화(鶴畫)」에 전하는 오대의 황전(黃筌)에 의해 확립된 ‘육학

75 金富軾, 「謝宣示太平睿覽圖表」, 『東文選』 권35 “陪臣某等言 今月十一日 伏蒙聖慈宣示宣和殿太平睿覽圖二册及成平曲宴圖仙山金闕圖蓬萊瑞靄圖姑射圖奇峯散綺圖村民慶歲圖夫子杏壇圖春郊耕牧圖玉清和陽宮慶雲圖筠莊縱鶴圖秋成欣樂圖白玉樓圖唐十八學士圖夏景豐稔圖太上度開圖 各一卷者.”

76 홍선표, 「화문과 화제의 분류체계」, 『미술사논단』 46(2018. 6), pp.9-10 참조.

77 中谷至宏, 「會場の美術—京都における展覧會史にみる繪畫の位置」, 『美學』 53:3(2002), pp.14-27 참조.

78 藤本猛, 「北宋末の宣和殿」, 『東方學報』 81(2007. 9), pp.16-23 참조.

79 《선화예람집》과 《선화예람책》에 대해서는 鄧椿, 『畫繼』 권1 「聖藝」, 『徽宗皇帝』 참조. 《선화예람책》은 처음 15종을 1책으로 시작해 계속 추가하여 1,000책에 이르렀다고 한다.

80 등촌, 『화계』 권1 「휘종황제」, “政和初 嘗寫仙禽之形 凡二十題 曰筠莊縱鶴圖 或戲上林 或飲太液 翔鳳躍龍之形 警露舞風之態 引吭暎天以極其思 刷羽清泉以致其潔 並立而不爭 獨行而不倚 閑暇之格 清迥之姿 寓於縑素之上 各極其妙而莫有同者焉.”





5  
 <청자상감화죽수금문판>  
 고려 후기  
 20.5×15.9cm  
 오사카  
 시립동양도자박물관

(六鶴) 도상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육학’도상은 고려 후기인 12세기 <청자상감화죽수금문판><sup>5)</sup>의 세 마리씩 병렬되어 있는 백로 문양으로 활용된다.<sup>81</sup>

‘기봉산기도’는 1113년 전후해 그린 것으로, ‘지척천리(咫尺千里)’법에 의해 서왕모가 사는 ‘군옥산(群玉山)’과 같은 첩첩한 산봉우리의 수려함과 밝은 노을과 부드러운 채운, 우뚝 솟은 궁궐이 돋보이는 채색풍의 누각산수화로 생각된다.<sup>82</sup> 할아버지 등순무(鄧詢武)가 화학에도 조예가 깊어 휘종의 측근으로 중

용되었기 때문에 황제 그림에 대해 전문이 넓고 높았던 등춘은, 이 작품이 “상서로운 빛과 기운이 아득히 흐르고 보는 이로 하여금 광활함을 뛰어넘어 봉래산과 영주산에 올라 천하를 손에 넣은 것 같은 경지”라고 했다. ‘천산금궐도’와 ‘봉래서애도’도 이러한 유형의 그림이 아니었나 싶다. ‘옥청화양궁경운도’와 ‘백옥루도’, ‘태상도개도’는 휘종이 신봉한 도교 관련 채색공필풍 회화이며, 옥우(屋宇) 또는 궁실(宮室)류의 계화(界畵)와 산수화가 혼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송의 서궁이 개경 북쪽의 태화문 안에 예종 때인 정화년간(1111~1117)에 세워진 도교 사원 북청궁의 벽화 가운데 노자의 도상과 휘종 작품의 유사성을 지적하기도 했다.<sup>83</sup>

고사인물화인 ‘당십팔학사도’는 626년 당 태종의 명으로 염립본이 그린 ‘진부(秦府)십팔학사도’에서 유래된 것으로, 타이베이 고궁박물관 소장 휘종 전칭작에 의하면 ‘등영도(登瀛圖) 계통의 십팔학사도로 추측된다.<sup>84</sup> ‘부자행단도’의 고사는 여러 설이 있는데, 『장자』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자가 행단에서 노닐 때 제자들은 글을 읽고 공부자는 거문고를 연주했다는 내용을 그린 것이 아닌가 싶다. ‘춘민경세

81 홍선표, 「전통 화조화의 역사」, 앞의 책(1999), pp.525-526 참조.

82 등춘, 『화계』 권1 「휘종황제」, “奇峰散綺圖 意匠天成 工奪造化 妙外之趣 咫尺千里 其晴巒疊秀 則閨風群也 明霞紵彩 則天漢銀潢也 飛觀倚空 則仙人樓居也.”

83 서궁, 『고려도경』 북청궁 벽화의 휘종풍 노자상을 현존하는 도상과 결부해 추측해 보면 북송 진종(眞宗)에 의해 옥황상제로도 지칭되며 『三敎搜神大全』 권1 「도교원류에 수록된 면류관을 쓴 모습을 연상시킨다.

84 ‘당십팔학사도에 대해서는 홍선표, 『조선 전기 <18학사도>의 신원』, 『조선회화』, pp.369-373 참조.

도와 '춘교경목도', '하경풍념도', '추성혼락도'는 사계경직류 풍속화이다. 풍속화는 초당의 배효원(裴孝源)이 639년 무렵 찬술한 『정관공사화사(貞觀公私畫史)』에 화제로 처음 등장했으며, 주경현이 840년경에 찬한 『당조명화록』에서 '풍속'으로 분류된 것이다.<sup>85</sup> 그런데 이들 사계경직도는 지배층의 민본(民本)적인 무일(無逸) 정신보다 풍작을 기원하는 길상성을 더 지닌 것으로 보인다. 휘종은 열람시킨 화적 중 가을 수확의 기쁨을 즐기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짐작되는 '추성혼락도'를 고려에 사여한 바 있다.<sup>86</sup> 고려 후기와 말기의 사경변상도에 부분적으로 보이는 경직 모티프는 이러한 풍속류 화적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밖에도 휘종은 1116~1117년 고려사절단과 함께 귀국하는 입송 유학생인 학사 권적(權適)에게 '관음상'과 '법화서탑' 각 '일탱(一幀)'을 비롯해,<sup>87</sup> 다양한 서화를 하사하였다. 법화경 경문을 탐형에 서사한 사경(寫經) 문자탑인 '법화서탑'의 경우 승려가 된 권적의 차남에게 전해졌으며, 그 외조카인 최자(崔滋)가 1254년에 서문을 쓴 『보한집』에 당시 현존한다고 기록한 바 있다. 현재 교토의 도지(東寺)에 소장된 1249년 제작으로 추정되는 고려 〈법화경서탑도〉는 이 '법화서탑'을 범본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sup>88</sup>

그리고 인종 원년(1123) 개경에 온 북송 사절을 통해서도 서화가 유입되었다. 노운적(路允迪)을 정사로 삼은 북송 국신사의 사절단에는 예물관으로 문인서화가 서공(徐兢, 1091~1153)도 함께 왔다. 서공은 고동기를 연구하여 금석문을 터득하고 전서에 뛰어났으며 산수인물화에서도 신품으로 평가받은 인물이다.<sup>89</sup> 특히 북송대 최고의 서화감평가이며 주장가이고 문방청완 애호가였던 문인서화가 미불의 아들인 미우인(米友仁, 1075~1151)과 서화박사로 이름을 나란히 했으며, 1124년 정월에 설립하여 500명의 생도를 가르치는 제거조치서예소(提舉措置書藝所)에서 함께 일하게 된다.

북송 사절의 정사, 부사가 숙소인 순천관의 낙빈정으로 김부식을 비롯한 관

85 홍선표, 「화문과 화제의 분류체제」, 앞의 논문(2018), pp.9-11 참조.

86 韓致滄, 『海東釋史』 권46 「藝文志」, 「寧和記聞」 “末政和中 高麗遣使金富軾來貢 徽宗賜其使秋成欣樂圖.”

87 권적이 중국에 유학가서 과거시험에 갑과로 합격하자 휘종이 가상이 여겨 청요직에 제수했으며, 귀국시 황제의 어전 앞에서 3일만에 외운 『법화경』을 암송하자 이를 가루하게 여겨 하사한 것이다. 崔滋, 『補閑集』 卷下, 참조.

88 정우택, 「고려의 중국불화 선택과 변용」, 『미술사연구』 25(2011. 12), p.112 참조.

89 『江南通志』 권171, 人物志 「藝術」 2와 「고려도경」 권40에 수록된 行狀 참조.

반관들을 초청하고, 아마도 예물관인 서공이 준비했을 중국에서 가져온 옛 기물과 ‘법서명화’ 등을 좌석에 늘어놓자 모두 그 진귀하고 이채로움에 경탄해 마지않았으며, 취향에 따라 원하는 대로 선물로 주었다고 한다.<sup>90</sup> 예종대(1105~1122)부터 본격화한 고동서화의 문방청완 취향을 접하고 이를 ‘경탄’하며 반응한 것을 기술한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싶다. 휘종시대의 서화박사로 산수인물화에 능했고 고려의 각종 경물과 기물들을 삽화로 그렸던 서공의 활동도 고려 중기의 회화 전개에 자극을 주었을 가능성이 추측된다.

서공 일행이 다녀간 다음해 인종 2년(1124)에 이자덕이 이끄는 사절단의 일원으로 이녕(李寧)이 북송에 가서 중국 역대 황제 중 서화가로 가장 저명한 휘종으로부터 근래 입송한 고려 화공 가운데 최고의 묘수라며 그림 솜씨를 칭찬받은 사실이 『고려사』 열전에 기록되어 있다. 휘종이 한림도화원의 대조 왕가훈(王可訓) 등에게 이녕을 따라 그림을 배우게 했는데, 왕가훈의 ‘춘경산수도’가 이때 교류를 통해 유입되었던지 이를 보고 읊은 의종과 고종년간의 문사 임춘(林椿)의 제화시가 전한다.<sup>91</sup>

당시 화적 교류는 사절단의 왕래뿐 아니라 상인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북송의 해상 상인이 인종에게 ‘도화’를 헌상한 것이 그 좋은 예라 하겠다. 서화에 능했던 인종이 “증화의 기품(奇品)”이라며 기뻐한 이 그림은 이녕의 작품이었는데,<sup>92</sup> 그렇다면 그의 화적이 북송 상인에 의해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녕이 입송하여 화명을 떨치고 화원을 총괄하던 대조들이 그를 따라 그림을 배웠다고 한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이녕의 작품이 개봉의 애호자들 사이에서 수집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고려 상인도 이러한 교역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북송의 문사 누약(樓鑰)은 고려 상인이 중국에 와서 당나라 8세기 중엽에 활약한 한간(韓幹)의 12필 말그림 화권을 저당 잡혔는데, 제점과 상황이 고려물품이라고 한 것으로 보면 고려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추측된다. 고려풍으로 장황한 것을 가져와 통역을 통해 물건을 자랑하면서 “한간의 솜씨 헛소문이 아니다”며 진품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90 서공, 앞의 책, 권26 「宴禮」 館會’ 참조.

91 홍선표, 앞의 책(1999), p.141 참조.

92 『고려사』 권122, 열전35 方技 ‘이녕’ “宋商獻圖畫 仁宗以爲中華奇品悅之 召寧誘示 寧曰 是臣筆也 仁宗不信 寧取圖析粧背 果有姓名 王益愛幸”

세간에서 괜찮은 말그림이면 당나라 화마의 명수 조패나 한간, 위언의 작품으로 일컬어졌기 때문에<sup>93</sup> 이 그림의 진위문제도 궁금하다. 고려 상인이 돈을 가지고 찾으러 온다고 하자 누약은 화공을 시켜 모사한 후 소식의 운을 써서 시를 지었는데 “나의 시가 삼한 땅에 도달할 수 없기에 새 그림에 써 놓고 때때로 쳐다본다”고 하였다.<sup>94</sup>

『당송시본』에 누약의 「제고려행간자(題高麗行看子)」로 수록된 내용을 한치운이 『해동역사』에 재록하여 전해진 이러한 일화를 통해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에도 없는 희귀본을 고려에서 소장한 서적의 사례도 있지만, 당말 오대를 거치며 상당수 멸실되어 희소해진 당 명화인 한간의 말그림이 통일신라 때부터인지 몰라도 고려에 있었고 상인이 이를 다시 고가로 팔기 위해 교역품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맺음말: 서화수장 시설 및 전관처의 탄생

문종대의 복고 이래 활발해진 북송과의 회화교류는 예종과 인종년간을 통해 휘종이 별도로 내린 ‘법서명화와 ‘진기이물(珍奇異物)’만 해도 ‘불가승계(不可勝計)’ 즉 그 수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 전래하기에 이른다.<sup>95</sup> 서화에 호 풍조의 대두와 함께 만당 이후 쓰기 시작해 송대에 확산된 성어인 ‘법서명화’는 앞서 언급한 인종원년(1123)에 서궁이 예물관으로 왔을 때 관반관들을 초청해 감상하고 선물로 주었을 때도 사용한 것으로, 남조의 왕희지와 왕헌지, 고개지와 육탐미와 같은 전설적인 거장의 서화에서 탄생한 개념이다.<sup>96</sup>

이와 같이 북송으로부터 서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자 이를 보관하는 수장각을 설치하게 된다. 삼도가 포함된 『삼례도(三禮圖)』와 같은 도서를 비롯해 각종 서적을 보관한 ‘비각(秘閣)’은 문종 9년(1056)부터 『고려사』에 보인다. 문덕전과 장령

93 米芾, 『畫史』 “世俗見馬 卽命爲曹韓韋.”

94 한치운, 『해동역사』 권46, 예문지5, ‘韓幹畫馬帖’ 참조.

95 李仁老, 『破閑集』 中 ‘鳳城北洞安和寺’ 참조.

96 ‘法書名畫’는 장언원의 『역대명화기』와 『舊唐書』에서 처음 쓰기 시작하였다. 왕희지와 왕헌지 부자는 886년에 지은 최치원의 『孤雲集』 권3 ‘大崇福寺碑銘’에서 ‘二王’으로, 고개지와 육탐미는 고려 말부터 ‘顧陸’으로도 지칭되었다.

전, 연영전, 임천각도 서적 보관과 열람 등의 왕실문고 역할을 하였다.<sup>97</sup>

구입 또는 하사받은 북송의 화적은 설립 시기를 알 수 없는 회경전 뒤편의 산 위에 있던 장화전(長和殿)에 수장한 것이 아닌가 싶다. 『고려도경』에 의하면 장화전의 양쪽 행랑이 보물 보관소로 다른 곳에 비해 경계가 훨씬 엄중한데, 그 동편에 중국 조정에서 보낸 내부의 진귀품을 보관했다고 한 것으로 보면, 광희의 ‘연람도’와 ‘추경도’를 비롯해 신종의 하사물 등을 수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1117년 5월 사은진봉사 이자량 일행이 귀국하면서 받아 온 휘종의 서화와 친필 조서는 6월 6일 천장각(天章閣)을 세우고 수장하게 하였다.<sup>98</sup> 휘종의 ‘추성흔락도’도 이곳에 보관되었을 것이다. 의종 19년(1165)에는 귀족 자제가 많았던 우번(右番)의 ‘내시(內侍)’, 즉 근시(近侍) 또는 근신들이 환관들과 함께 왕명을 사칭해 공사간의 서화를 색출하여 왕에게 다투어 바치기도 했다.<sup>99</sup> 이들 서화도 이러한 수장시설에 보관되었을 것이다.

청연각도 서화 수장처로 거론되고 있는데, 장서관이면서 경전을 감독하고 서화를 완상하는 도서관과 박물관이 복합된 학예시설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117년 6월 무렵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김인존(金仁存; 초명 金緣, ?~1127)의 『청연각기(淸讌閣記)』에서,<sup>100</sup> 예종이 “유학을 숭상하고 화풍을 사모하여” “보문각과 청연각을 건립하고” “한 곳에는(청연각) 송 황제(휘종)의 어제와 조칙, 서화를 받들어 걸어 놓고 용의를 엄숙하게 한 뒤 절하고 우러러보았다”고 한 것으로 보면, 보관시설 보다는 관람하는 전관처(展館處)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청연각은 예종 11년(1116) 8월, 연회하는 장소인 자화전 남쪽에 보문각과 거의 같은 시기에 설립되었다. 난간 밖에 돌을 쌓아 산을 만들고 섬돌 아래의 가장 자리에는 물을 끌어다가 연못을 만들었는데, 우뚝 솟은 만 가지 모양과 사면의 맑은 물은 동정호와 회계산의 그윽한 유승(幽勝) 같았다고 한다.<sup>101</sup> 우측의 보문각은

97 임지혜, 『고려시대 왕실문고에 관한 고찰』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p.31-52 참조.

98 『고려사』 권14 세가 예종12년 6월 6일 “命置天章閣于禁中 藏末帝所賜親製詔書 及御筆書畫.”

99 홍선표, 앞의 책(1999), p.133 참조.

100 『고려사』 권96, 열전9, ‘김인존에서 청연각의 모임을 “越今年夏”로 기록했는데, 『동문선』의 김인존(김연) 『청연각기』에 “越丁酉夏四月有二日” 즉 1117년 4월 2일이 지난 뒤 모임에 의해 쓰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의거했는지 서공은 “丁酉夏四月有三日”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모임이 이자량 일행이 가져온 휘종의 하사물을 관람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사은진봉사가 귀국한 5월 30일 이전에 성립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석 문신들의 관직 중 일부가 6월 23일에 바뀌기 때문에 이 무렵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101 서공, 앞의 책, 권6, 궁전2, 『延英殿閣』, “欄楯之外 疊石成山 庭除之際 引水爲沼 巖峯萬狀 淸潭四徹 洞庭

송 황제들의 조서를 보관했고, 좌측의 청연각은 경연장소로 여러 역사서와 제자백가서를 둔 곳으로, 서궁도 “경사자집(經史子集)의 사부 서적으로 채워져 있다고 했다. 그런데 1117년 5월 사은진봉사 이자량 일행이 귀국하면서 받아온 휘종의 서화와 ‘완용지물(玩用之物)’인 각종 서화고동을 6월경 청연각에 진열하고 10여 명의 문신을 초대해 연회를 베풀면서 “눈이 가는 대로 관람(縱目以觀覽)”하게 한 곳이기도 하다. 내부의 ‘보장(寶藏)’을 내어 와 보여줬다고도 했는데, 그 수장처는 장화전이나 천장각이었을 것이다. 예종 16년(1121) 12월 2일에도 왕이 청연각에 거동하여 송 황제가 사여한 서화 등을 재상과 근신들에게 두루 보여주었다.<sup>102</sup> 예종은 문신, 또는 사인(詞人) 일사(逸士) 등과 함께 시를 주고받은 ‘창화집(唱和集)’을 남겼을 정도로 군신이 문예를 함께 누리며 즐기는 군왕으로도 유명했었다.<sup>103</sup> 특히 이와 같은 군왕 주도의 서화 전시(宣示) 관습이 상류층 또는 문사층 사이로 완상문화를 촉진하고 확산하는 계기를 이루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주제어 keywords

고려회화 painting of Goryeo Dynasty, 회화교류 painting exchange, 북송회화 painting of Northern Song Dynasty, 원체풍 academic painting style, 상국사 벽화 mural painting of Sangguk temple, 흥왕사 벽화 mural painting of Heungwang temple, 청연각 Cheongyeongak

투고일 2019년 8월 20일 | 심사일 2019년 9월 25일 | 게재확정일 2019년 10월 30일

吳會幽勝之。”

102 『고려사』 권14 세가 제14 예종 16년 12월 2일 “御清讌閣 以宋帝所賜書畫等物 宣示幸樞侍臣。”

103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권21 「睿宗唱和集跋尾」 참조.

사료

- 『江南通志 *Jiangnan tongzhi*』  
 『高麗史 *Goryeo-sa*』  
 『高麗史節要 *Goryeo-sa Jeolyo*』  
 郭若虛 Guo, Ruoxu, 『圖畫見聞志 *Tuhuajianwen-zhi*』  
 鄧椿 Deng, Chun, 『畫繼 *Huaji*』  
 孟元老 Meng, Yuanlao, 『東京夢華錄 *Dongjing Menghualu*』  
 米芾 Mi, Fu, 『畫史 *Huashi*』  
 徐兢 Seo, Geung, 『宣和奉使高麗圖經 *Xuanhwafengshi Gaolitujiing*』  
 蘇軾 Su-shi, 『東坡全集 *Dongpoquanji*』  
 劉道醇 Liu, Tao-chun, 『五代名畫補遺 *Wudaiminghua-zhi*』  
 劉道醇 Liu, Tao-chun, 『聖朝名畫評 *Sung-chao ming-hua ping*』  
 李昉 Li, fang 等 編, 『太平御覽 *Taipingyulan*』  
 李濂 Li, Yan, 『汴京遺迹志 *Bianjingyiji-zhi*』  
 李仁老 Lee, Intro, 『破閑集 *Pahan-jip*』  
 張耒 Zhang, Lei, 『柯山集 *Keshanji*』  
 鄭方坤 Zheng, Fangkun, 『五代詩話 *Wudaishihua*』  
 曹學佺 Cao, Xuequan, 『蜀中廣記 *Shuzhongguangji*』  
 朱謨瑩 Zhu Mouyin, 『畫史會要 *Huashihuiyao*』  
 朱彝尊 Zhu, Yi-zun, 『經義考 *Jingyikao*』  
 彭大翼 Peng, Dayi, 『山堂肆考 *Shantangsikao*』  
 韓致瀛 Han, Chiyoon, 『海東繹史 *Haedongyeoksa*』  
 黃庭堅 Huang, Tingjian, 『山谷集 *Shanguji*』

논저

- 김문기 Kim, Moonkee, 「근세 동아시아의 魚圖와 어류박물학: 『시경』과 『산해경』을 중심으로 Drawings of Fishes and Ichthyological Knowledge in Early Modern East Asia : With Focus on the Shijing and Shanhaijing」, 『역사와 경계 *History & the Boundaries*』 105(2017. 12), pp.385-452.
- 김영제 Kim, Youngjae, 「고려사절에 대한 북송정부의 예우 The Cordial reception of Northern Song Government to Koryo mission: Related to Koryo mission's trip in Shenjong Dynasty」, 『중국사연구 *The Journal of Chinese Historical Researches*』 84(2013. 6), pp.81-110.
- 박용운 Park, Yongwoon, 「고려·송 교빙의 목적과 사절에 대한 고찰(상) On the Aims of Diplomatic Relations and Delegates between Koryo and Sung Dynasties(To be continued)」, 『한국학보 *Journal of Korean Studies*』 22:1(1992), pp.4188-4210.

- 양진성 Yang, Jin Sung, 『『太平御覽』의 편찬에 대하여: 북송초 도서전적의 수집과 관련하여 A Little View on the compilation of Imperially reviewed encyclopaedia of the Tai-ping era, 『한국사학사학보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of Historiography*』 33(2016. 6), pp.187-218.
- 이진환 Lee, Jin-Han, 「고려 문종대 對宋通交와 무역 Goryeo's Foreign Relations and Trade with the Chinese Sung Dynasty During the Reign of King Munjong (1047-1083)」, 『역사학보 *Yoksa Hakbo*』 200(2008. 12), pp.249-276.
- 정선모 Jung, Sunmo, 「북송후기 고려사절단의 북송사행 路程考-成尋의 『參天台五臺山記』를 중심으로 A Study about the Course of Goryeo Mission in the Late Northern Song - Based on Chamcheontaeodaesangi by Seong Sim」, 『대동문화연구 *Daedong Munhwa Yeongu*』 99 (2017. 9), pp.223-250.
- 정우택 Chung, Woo Thak, 「고려의 중국불화 선택과 변용 The Selection and Transformation of Chinese Buddhist painting in Goryeo」, 『미술사연구 *Journal of ART History*』 25(2011. 12), pp.109-135.
- 홍대환 Hong, Daihan, 「고려시대 工匠운영과 성격 고찰-조탑 공장 사례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Management and Character for Artisans in Koryo Dynasty」, 『인문사회과학연구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3:1(2012. 4), pp.213-254.
- 홍선표 Hong, Sunpyo, 「고려 초기 회화의 조명 Review of paintings in the early period of Goryeo」, 『미술사논단 *Art History Forum*』 48(2019. 6), pp.39-70.
- 홍선표, Hong, Sunpyo, 「고려시대의 회화이론」, 『미술사학연구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 187 (1990. 9), pp.3-23.
- 홍선표 Hong, Sunpyo, 「조선 전기 <18학사도>의 신원 Identity of Private Collection The Eighteen Scholars (Shi-ba xue-shitu)」, 『조선회화 *Joseon Dynasty Painting*』, pp.369-373.
- 홍선표 Hong, Sunpyo, 「화문과 화제의 분류체계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Painting Divisions and Painting Subjects」, 『미술사논단 *Art History Forum*』 46(2018. 6), pp.7-23.
- 藤本猛 Fujimoto, Takeshi, 「北宋末の宣和殿 Xuanhedian in the last decade of the Northern Song」, 『東方學報 *Departmental Bulletin Paper*』 81(2007. 9), pp.1-68.
- 黃夏 Huang, Xia, 「北齊畫工 曹仲達のについて The Painting Career of the “Northern Ch'i Painter” Ts'ao Chung-ta」, 『早稻田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 *Bulletin of the Graduate Division of Literature of Waseda University*』 62:3 (2017. 9), pp.285-303.
- 古原宏伸 Kohara, Hironobu, 『米芾 『畫史』 註解 *Bei Futsu "Gashi" chūkai*』 上, 中央公論美術出版 Tokyo: Chuo Koron Bijutsu Shuppan, 2009.
- 西林孝浩 Nishibayashi, Takahiro, 「曹仲達繪畫樣式の復元 Cao Zhongda's painting style」, 『立命館言語文化研究 *Ritsumeikan studies in language and culture*』 30:1(2018. 3), pp.129-160.
- 豊島悠果 Toyoshima, Yuka, 「1116年入宋高麗使節の體驗 An envoy from Goryeo dispatched to Song in 1116」, 『朝鮮學報 *Chosen Gakkai*』 210(2009. 2), pp.1-56.



- 塚本麿充 Tsukamoto, Maromitsu, 「皇帝の文物と北宋初期の開封(下)―啓聖禪院, 大相國寺をめぐる文物とその意味について Imperial Cultural Properties and Kaifeng in the Early Northern Song Dynasty: The Culture of the Imperial Court and the Buddhist Temples Qishengchanyuan and Daxiangguosi (Part 2)」, 『美術研究 *The bijutsu kenkiu/ The journal of art studies*』406 (2012. 3), pp.391-416.
- 楊軍 Yang, Jun, 「汴京大相國寺: 北宋的書畫交易市場」, 『中國社會科學報 *Zhongguo she hui ke xue bao*』(2014. 3. 20).

## Painting Exchange with Northern Song in the Mid-Goryeo Dynasty

Hong, Sunpyo

The mid-Goryeo Dynasty (approx. 1050-1150), extended from the new tendencies of early Goryeo paintings, continued from King Munjong to Uijong. This period saw the rise of literati painters, theory, and subject of painting. To begin with, Hwaguk(畫局; the Imperial Painting Academy of Goryeo) was established, and painters such as Lee Nyeong(李寧) who created notable paintings emerged, accelerating a turn to paintings for appreciation. With the accommodation of Eojebijangjeon(御製秘藏詮; including Eojebulbu and Eojejeonwonga) Sansupanhwa(山水版畫; landscape print), Sansuhwa(山水畫; landscape painting) developed. The development of Sansuhwa resulted the start and evolution of Silkyungsansuhwa(實景山水畫; real landscape painting). Also, Buddhist paintings developed with the hyperrealistic style of academic painting. Such qualitative change and shift in the mid-Goryeo dynasty was highly influenced by painting exchange with Northern Song led by King Taejo and King Munjong, who was adored as a benevolent and divine king. This study focuses on painting exchange with Northern Song, which played a crucial role in bringing such shift to mid-Goryeo paintings based on written records. On March of the 25th year of Munjong (1071), the alliance between Goryeo and Song resumed. Since then, delegates of each country came and went for about 30 times actively proceeding painting exchange. This was until 1127, when the capital of the Jin Dynasty fell down and Northern Song collapsed. By this, different tendencies of Northern Song paintings which informed the golden ages of Chinese paintings flowed in, and changed Goryeo paintings into medieval ones for appreciation. These tendencies were also used for the establishment of high-degree academic painting style. Investigation on the painting exchange between mid-Goryeo and Northern Song is still unclear; however, this study is critical in means of starting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oryeo paintings and the history of East Asian paintings. Therefore, this study plans to restore the true history of Goryeo paintings in both diachronic and synchronic contexts, with detailed analysis and historical research distinct from previous studies which solely displays a list of brief data.